

RCNB의 설립 목적과 사업

쿠치나돌체 찾아가는 길



BT (biotechnology), NT (nanotechnology), IT (informational technology)는 21세기 과학기술을 선도할 주요분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첨단 나노-바이오-의과학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국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이러한 융합연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연구센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나노-생명분자 복합체 연구 및 나노 물질의 물성 연구
- 2)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 3) 나노-바이오, 나노-의과학 및 바이오-의과학 융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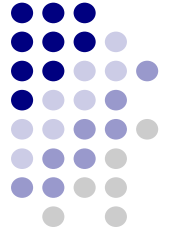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Colloquium

대화, 소통 그리고 융합 : 창조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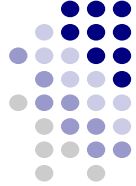
일시 : 2012년 1월 27일 (금)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301호



대화, 소통 그리고 융합: 창조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Conversation,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Nano-Bio Fusion Technology, RCNB)가 설립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교내외적으로 본 연구센터의 존재를 알리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월 27일 colloquium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RCNB가 나노-바이오 융합연구를 표방하는 센터로 발족은 하였지만 향후 범위를 확대하여 융합기술연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로 이번 colloquium의 주제를 “대화, 소통 그리고 융합: 창조적인 연구개발로의 전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전공의 너와 나누는 대화, 서로 간의 공통점을 끄집어 내는 소통 이 두 개가 선행될 때 비로소 융합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한 요즘 대학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무가 어느 시대보다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보다 창조형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에 학문간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1세기 화두인 학문간 융합을 주도하기 위해 본 연구센터는 이제 첫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외눈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기계적 융합이 아닌 열린 자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다양한 의견과 따뜻한 조언 부탁 드리면서 콜로кви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7일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장 정성현

Colloquium 순서

- 14:00 - 14:10 등록
- 14:10 - 14:20 총장님 축사
- 좌장 : 오 범 석**
- 14:20 - 15:00 정 성 현 (경희대학교 RCNB 센터장)
Basic Science and Convergence:
Today and Future
- 15:00 - 15:40 박 중 화 (테라젠연구소)
Perspectives of Personal Genome
Sequencing
- 15:40 - 16:00 축하공연
- 16:00 - 16:20 Coffee break
- 좌장: 하 상 수**
- 16:20 - 17:00 이 만 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The Future of the Research Institute
- 17:00 - 17:40 현 택 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Designed Synthesis and Assembly of
Uniform-sized Nanoparticles for Multi-
functional Medical Applications
- 17:40 - 18:00 중합
박 승 민 (경희대학교 화학과)
- 18:30 - 간천회
쿠치나돌체 (뒷면 약도 참조)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전화: 02-961-0373
팩스: 02-957-0384
전자 메일: suchungkhu.ac.kr